

##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미(美) 관세 파고 넘는 지원망 촘촘히

- 업무협약(MOU) 체결 통해 관세관·무역관 협력망 신설, 관세·규제 정보 신속 전파
- 9월 전국 12개 지역 설명회도 공동 개최 … 지역기업 수출 애로 해소

-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강경성)와 9월 23일(화)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관세청 관세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무역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출입 규제, 관세, 원산지 규정,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정보를 신속히 수집·전파할 계획이다.
  - 국내에서는 최신 통상정책, 대체 시장 동향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와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양 기관은 9월 한 달간 전국 12개 지역에서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를 열어 기업들이 미국발 통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돋고 있다.
- 아울러 관세청 6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12개 지방지원본부 간 협력망도 연계하여, 지역 경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과 기업지원 콘텐츠를 함께 발굴할 계획이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전방위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와의 국내외 네트워크 협업을 바탕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은 “미국의 고관세 정책 및 품목별 관세 확대로 인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정부의 관세협상 후속 지원 대책을 적극 이행함과 동시에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수출기업 관세애로를 줄이고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관세청	책임자	과장	임주연 (042-481-3210)
	국제협력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수미 (042-481-3211)

